

#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실태, 격리불안과 죄책감

## Long-Distance Mothers' Foster Care Types, Separation Anxiety, and Guilt in Foster Care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석사과정 박주영  
교수 조복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Graduate course : Park, Ju Young  
Professor : Cho, Bok H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foster care of long-distance parents who meet their children on weekend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paration anxiety and maternal guilt in foster care.

The subject consisted of 138 employed mothers who are living separately with their children.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Separation Anxiety Scale(Cho & Park, 1992), the Maternal Guilt Scale(Kim & Kang, 1997), the Parental Satisfaction Scale(Hyun & Cho, 1994), and the Parental Stress Scale(Park, 1994).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1. Mothers had a tend to rely on family members especially grandparents for foster care of their children. They usually have visited to meet their children weekend and made a phone call once a day. Parental satisfaction in foster care was reported to be moderately high level.

2. The subject's separation anxiety was found to be high, and it was strong positive relationships to maternal guilt feeling in foster 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both formal and informal support systems of employed mothers with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used as basis for understanding long-distance parents' problems in foster care, developing support programs, and public policy for employed mothers.

## I. 서론

최근 기혼 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연구가 자녀교육과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김미영, 1995; 서영숙·김경혜, 1997; 조희금, 1999). 이러한 자녀교육과 양육의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육아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자녀양육이 사회적·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보육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 냈으며, 그에 따라 보육시설의 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취업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보육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세 미만 유아의 보육시설 수탁율은 20.4%에 불과하고(한국여성개발원, 1998) 기존 보육시설에 정원이 미달된다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허선, 1993; 김영모, 1994).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간의 비적절성과 질 높은 보육시설의 부족과 같은 현재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이 취업모의 보육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전세경, 1994b).

질 높은 보육시설의 부족과 함께 보육시간의 비현실성과 같은 보육시설 운영의 여건미비로 취업모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혹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가족보육(백경임·강희경, 1995)을 많이 택하게 되었고, 자녀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놓고 주말에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주말부모'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손승영, 1994).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미흡하지만 '산후휴가제' 등과 같은 복지제도가 생겨나고 있어 자녀의 양육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주말부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육자의 잦은 변경은 자녀의 적응기간동안 취업모와 자녀 모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게 되므로 차라리 거리가 멀어서 자녀를 자주 볼 수 없어도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자녀를 맡겨놓고 주말에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주말부모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주말부모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주말부모의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 나중에는 부모를 낯설어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심리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주말부모 자신도 자녀를 볼 수 없어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며, 부모로서 자녀양육이라는 일차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죄책감과 함께 불안감까지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죄책감과 불안감이 나아가서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한다(전세경, 1994b).

주말부모에 대한 사례연구(박숙자, 1990)에서 '자기 자식을 직접 키우지 못하여 항상 마음에 걸리며, 아이들이 엄마 밑에서 성장하지 못해 눈치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출부를 고용하였을 때 갑작스레 못 오는 경우에 매우 난처했던 경험들이 많아 차라리 주말엄마 노릇을 하는 것이 한가지 일이라도 충실할 수 있다'는 반응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말부모들이 가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애로점이나 죄책감 등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부모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한 결과는 전세경(1994b)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참 귀여울 때에 아이의 재롱을 보지 못해 안타깝고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한가하면,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퇴근 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웬지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례들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연구(이재연·김명숙, 1990)에서도 어머니의 직장관계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고통이 따르고 자녀와 부모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에 벽이 생겨 자녀가 엄마, 아빠를 낯설어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적응의 어려움은 별거 기간이 길수록, 만나는 빈도가 적을수록 크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몇몇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주말부모는 기본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는 죄책감과 함께, 자녀들과 수시로 헤어져야 하는 격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양육스트레스까지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겪는 죄책감과 격리불안,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이 어느 부모들보다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말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들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문제점,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자녀를 자주 볼 수 없다는 죄책감과 격리불안을 보다 새로운 각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말부모에 대한 몇몇의 연구들은 사례분석을 통해 주말부모의 애로점만을 간단히 소개해 놓은 정도에 불과하거나(박숙자, 1991; 전세경, 1994b), 취업모의 보육실태를 제시하면서 보육의 한 유형으로 주말부모의 비율과 양육실태만을 미약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이미화, 1993; 이재연·김명숙, 199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0).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주말부모'의 양육실태를 살펴보고 주말부모 어머니가 가지는 격리불안과 죄책감을 파악해봄으로써 주말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말부모의 자녀양육실태는 어떠한가?
2. 주말부모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어떠한가?
  - 2-1. 주말부모의 격리불안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자녀양육실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자녀부모의 격리불안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3. 주말부모 어머니의 죄책감은 어떠한가?
  - 3-1. 주말부모의 죄책감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자녀양육실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2. 주말부모의 죄책감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가?
4. 주말부모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죄책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충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직장 관계로 자녀를 시부모나 친정부모, 친척집 혹은 기타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겨놓고 주말이나 혹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나 한번 이하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때에만 자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주말부모 어머니 1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인 주말부모 어머니는 제보자모집 방법을 통해 표집되었다. 즉 연구자의 소개를 받아 조사자가 연구대상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또 조사과정 중에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아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며칠 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설문지 조사를 의뢰한 후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총 170부 중 144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138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 2. 측정도구

주말부모의 양육실태와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격리불안 및 죄책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주말부모의 양육실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0)와 전세경(1994)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에 의해 파악되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애로점, 직장포기에 대한 생각과 이유, 자녀와의 연락·방문빈도, 자녀와 별거 시 애로점 및 별거이유, 대리양육장소와의 거리,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대리양육자의 특성, 대리양육 기간, 대리양육의 변경경험과 이유, 자녀와 같이 살 계획, 주말부모의 가족형태가 갖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원하는 보육제도 등 주말부모 가족의 특성과 대리양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19문항으로 구성되

&lt;표 1&gt;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38\*

변 인	내 용	빈 도	변 인	내 용	빈 도
연 령	20대	50(37.0)	학 령	고졸 이하	46(33.8)
	30대	82(60.8)		전문대졸	45(33.1)
	40대 이상	3( 2.2)		대졸	35(25.7)
		대학원졸		10(7.4)	
직 업	전문기술직	60(46.2)	근로시간	8시간미만	4( 3.0)
	일반사무직	44(33.8)		8-10시간	117(88.7)
	행정공무원	4( 3.1)		10시간초과	6( 4.5)
	생산기술직	1( 0.8)		기타	11( 8.3)
	서비스직 기 타	15(11.5) 6( 4.6)			
출근시간 (오전)	7시 이전	12( 9.4)	퇴근시간 (오후)	5시 이전	39(30.7)
	7-8시 사이	52(41.0)		5-7시 사이	75(59.1)
	8-9시 사이	57(42.5)		7시 이후	13(10.2)
	9시 이후	9( 7.1)			
가족의 월수입	200만원이하	24(21.1)	취업모의 월수입	100만원이하	46(39.7)
	201-300만원	57(50.0)		101-150만원	45(38.7)
	301-400만원	24(21.0)		151-200만원	21(18.2)
	401만원이상	9( 7.9)		201만원이상	4( 3.4)

\* missing case로 인해 전체 사례 수와 차이 있음.

었다. 이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대학원생에 의해 문항의 내용이 검토 및 수정되었다.

### 1) 격리불안

주말부모의 격리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박성옥(1992)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에서 5개의 하위영역 중,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 영역에서 주말부모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된 1문항을 제외시킨 총 38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격리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계수가 .88로 보고되고 있다.

### 2) 죄책감

주말부모 어머니가 가지는 죄책감은 김기현·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척도와 Mann과 Thornberg(1987)가 개발한 어머니 죄책감 척도(Maternal Guilt Scale)를 바탕으로 주말부모의 특성을 감안한 문항을 첨가하여 측정되었다. 즉,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

감' 8문항과 김기현·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Mann과 Thornberg(1987)의 죄책감 척도에서 보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 5문항과 보육에 대한 만족도 요인 1문항, 그리고 주말부모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만든 7문항을 첨가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주말부모의 죄책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계수가 .91로 나타났다.

### 3)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현은강·조복희(1994)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5개의 하위 영역 중 자녀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 등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만족도'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계수는 .82 보고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Abidin(1983)에 의해서 개발된 Parenting Stress Index를 박해미(1994)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스트레스의 변인을 아동특성과 부모특성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부모특성의 하위요인의 '유능성' 중 부모의 학력을 제외한 7문항과 '침체성' 4문항이 선정되었다. 유능성과 침체성의 11문항을 모두 합하여 산출된 신뢰도는 .64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반응하게끔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실태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말부모 어머니가 대리양육 하게 한 자녀수는 1명이 78.3%, 2명의 경우가 21.8%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녀의 연령은 2개월부터 98개월까지 넓게 분포하였으며, 1세-2세가 37.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전체 사례의 87.5%가 4세 이하의 자녀를 대리양육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맡기는 곳의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친정(46.4%)과 시댁(44.2%)에다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보육시설도 29%로 나타나 주말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양육자의 교육정도는 중졸이하가 60.9%이고 고졸이 31.2%로 나타나 대리양육자의 교육정도가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의 나이는 24세부터 73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55.4세이며, 40-50대가 48.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40.6%이었다. 대리양육자가 20-30대인 경우는 친척집에 자녀를 맡긴 경우나 친정이나 시댁에 자녀를 맡겨 두더라도 부모님이 아닌 다

<표 2> 주말부모의 자녀양육실태 (I) N=138

변수	내용	빈도(%)
대리양육 자녀수	1명	97(78.3)
	2명	27(21.8)
대리양육자녀 출생순위	첫째	83(85.6)
	둘째 이하	14(14.4)
대리양육자녀 성별	남자	46(47.9)
	여자	50(52.1)
대리양육자녀 연령	1세 이하	29(30.2)
	1세 1개월-2세	36(37.5)
	2세 1개월-4세	19(19.8)
	4세 1개월 이상	12(12.5)
대리양육 형태	친정집	64(46.4)
	시댁	61(44.2)
	친척집 보육시설	9( 6.5) 4( 2.9)
대리양육자 교육정도	초졸이하	36(26.1)
	중졸	48(34.8)
	고졸	42(31.2)
	전문대졸 대졸	2( 1.4) 9( 6.5)
대리양육자 나이	20-30대	12( 9.4)
	40-50대	67(48.6)
	60대	56(40.6)
	70대 이상	2( 1.4)
대리양육비용	없음	5( 3.9)
	30만원이하	51(39.5)
	31-50만원	57(44.2)
	51만원이상	16(12.4)
대리양육기간	1년이하	46(34.1)
	1년1개월-3년	58(42.9)
	3년1개월-5년	21(15.6)
	5년1개월이상	10( 7.4)
대리양육장소거리	차타고 1시간 이내	62(45.3)
	차타고 1-2시간 사이	30(21.9)
	차타고 2-3시간 사이	20(14.6)
	차타고 3시간 이상	25(18.2)
대리양육자 변경경험	없다	104(75.4)
	있다	34(24.6)
대리양육자 변경이유	교육상의 문제로 대리양육자의 사정으로	4(11.8) 21(61.8)
	집이 이사하여	4(11.9)
	동생이 생겨서	1( 2.9)
	기타	4(11.8)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93(67.9)
	약간 만족	1( 0.7)
	보통	20(14.6)
	약간 불만족 매우불만족	16(11.7) 7( 5.1)

른 가족이 돌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대리양육에 드는 비용은 평균 36.7만원이었다. 31-50만원이 44.2%, 30만원이하가 39.5%로 나타났으며, 51만원이상도 1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 기간은 1개월에서 11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M=27.2개월), 자녀를 맡긴 곳과의 거리는 차로 1시간 이내가 45.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차로 1-2시간 사이도 21.9%로 나타나 자녀를 맡긴 곳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대리양육자를 바꾼 경험에 대해서는 바꾼 경험이 없다고 75.4%로 바꾼 경우(24.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바꾼 경우에는 주말부모 자신의 사정보다는 대리양육자의 사정으로 바꾼 경우(61.8%)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말부모 어머니가 자녀를 방문하는 빈도는 주말마다 방문하는 경우가 48.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한 달에 5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25%)와 한 달에 2-3번 방문하는 경우(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이나 휴가 때만 방문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부모 어머니들은 적어도 한 달에 1번 이상 자녀를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일주일에 5번 이상하는 경우가 53.3%였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2-3번(24.1%), 일주일에 4-5번(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에 응한 주말부모 어머니들의 절반이상이 자녀에게 자주 연락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방문빈도나 연락빈도가 대리양육 자녀의 출생순위, 성별, 연령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chi^2$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떨어져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자녀의 부정적 성격형성에 대한 염려(37.0%)와 아이를 자주 볼 수 없는 것(30.4%)으로 밝혀졌다. 주말부모의 걱정 중에서 자녀의 교육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이 대부분 4세 이하의 어린 자녀이기 때문으로 본다.

주말부모가 된 배경, 즉 자녀와 떨어져 사는 이유는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6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에게 맡기기 싫어서나 자녀를 맡긴 곳

〈표 3〉 주말부모 자녀양육실태(II)

N=138

변수	내용	빈도(%)
자녀와의 방문빈도	한달에 1번 이하	11( 8.1)
	한달에 2-3번	25(18.4)
	주말마다	66(48.5)
	한달에 5번 이상	34(25.0)
자녀와의 연락빈도	일주일에 1번이하	4( 2.9)
	일주일에 2-3번	33(24.1)
	일주일에 4-5번	27(19.7)
	일주일에 5번이상	73(53.3)
주말부모의 애로점	아이를 자주 볼 수 없음	42(30.4)
	아이와의 관계 소원	17(12.3)
	아이의 교육문제	16(11.6)
	아이의 성격형성	51(37.0)
	아이의 생활태도	2( 1.4)
	아이의 건강과 영양상태	10( 7.2)
주말부모가 된 배경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93(67.9)
	동생이 생겨서	1( 0.7)
	남에게 맡기기 싫어서	20(14.6)
	대리양육자와의 거리상의 이유로 여건이 허락치 않아	16(11.7) 7( 5.1)
아이와 다시 함께 살 계획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을때	77(55.8)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20(14.5)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17(12.3)
	계속해서 대리양육자에게 맡김	8( 5.8)
	기타	15(11.6)
원하는 보육유형	직장근처의 시간제 보육	8( 5.8)
	직장근처의 종일제 보육	40(29.2)
	집근처의 시간제 보육	14(10.2)
	집근처의 종일제 보육	37(27.0)
	부모님	31(22.6)
	친척집	1( 0.7)
	기타	6( 4.4)
직장생활의 애로점	자녀의 정서 불안정	68(50.4)
	임금이 적음	7( 5.2)
	가사부담 줄지 않음	20(14.8)
	휴식시간이 없음	23(17.0)
	승진의 가능성 없음	9( 6.7)
	일의 보람 찾기 힘들	4( 3.0)
기타	4( 3.0)	
직장 포기에 대한 생각	없다	25(18.1)
	있다.	113(81.9)
직장포기를 생각한 이유	아이의 정서·교육 문제	93(67.9)
	본인의 수입과 양육비 비슷	1( 0.7)
	시부모의 반대로	20(14.6)
	남편의 반대로	16(11.7)
	가사일 직장일 둘다를 하는 것이 힘들	7( 5.1)

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라기 보다는 주말부모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줄 적당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와 앞으로 함께 살 계획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을 연령쯤일 때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 중에서는 1년 이내의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살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어머니 자신의 퇴직 시와 자녀가 걸음마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하다는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리양육자에게 불만족할 경우, 불만족 이유는 '자녀의 버릇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를 1순위로, '교육수준이 낮아서'가 2순위이며 '나이가 너무 많아서'가 3순위로 나타났다. 앞으로 원하는 보육유형은 직장근처의 종일제 보육형태(29.2%)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집근처의 종일제 보육형태(27.0%), 부모님(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모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보다는 직장이나 집근처의 종일제 보육시설을 더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말부모 어머니들이 갖는 직장생활의 애로점을 물어보았을 때도,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하다가 50.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녀 양육과 관련시켜 대답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휴식시간이 너무 없음(17.0%)과 가사부담이 줄지 않음(14.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의 응답으로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슬프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직장 내에서 느껴지는 직무의 어려움이나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자녀의 교육문제나 정서 불안정 등과 같은 자녀와 관련된 것에서 더 많은 애로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로 인한 직장포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가 18.1%이고, '있었다'가 81.9%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주말부모 어머니들이 직장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포기를 생각한 이유는 자녀의 정서·교육문제가 67.9%로 제일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이 시부모의 반대(14.6%)와 남편의 반대(11.7%)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은 자녀의 정서·양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주말부모의 가족형태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분석하여 보았다. 주말부모 가족형태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녀의 정서·성격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꼽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와 계속 떨어져 살면 아이의 성격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이와 같이 지낼 시간이 적어서 친해지기가 힘들다',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등과 같은 문제를 진술하였다. 그 외에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라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을 또한 제시하였다.

자녀와의 상호관계 측면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주말마다 자녀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고 교통비도 적지 않게 든다는 것들을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집안분위기의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하숙집 생활 또는 두 집 생활하는 느낌이 든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대리양육자가 응석을 너무 받아 주어 버릇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를 들어 대리양육자와의 교육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해주느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의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은 자녀가 부모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엄마나 아빠보다 할머니·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하는, 즉 대리양육자에게 더 많은 애착을 보이는 점과 헤어질 때 떨어지지 않으려는 자녀의 애정결핍상의 문제였다. 그리고 양육비와 그 외 잡비를 더하면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유사하다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에게 느끼는 미안함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들고 있다.

주말부모 가족형태의 긍정적인 면도 보고되었다. '아이와 함께 살 경우 그에 따른 양육부담의 증가로 피곤, 짜증을 낸다면 아이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것 같다. 따라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말에 아이를 대할 때 정성을 다해 아이와 즐겁게 놀아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어머니는 너무 권위적인 양육태도로 아이를 다그치는데 반해 할머니는 포근히 대해 주셔서 성격이 느긋해졌다', '시골에서 아이가 자라므로 정서적으로 좋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중에 자녀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의 감소와 자녀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므로 직장생활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부모님께 기댈 수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점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가족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정보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들고 있다.

## 2. 주말부모 어머니의 격리불안

주말부모가 자녀를 대리 양육자에게 맡겨둔 후 나타내는 전반적인 격리불안의 평균은 32점으로 5점 척도에서 중양값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들의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대리양육을 하는 곳이 주로 친정이나, 시댁 혹은 친척집이기 때문에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아이

를 잘 돌보아 줄 것이라는 대리양육자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1) 주말부모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격리불안

주말부모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격리불안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격리불안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격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31, p<.05$ ). 연령이 낮은 어머니는 대리 양육하는 자녀가 첫 자녀인 경우가 많아 양육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리라 여겨진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격리불안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67, p<.05$ ), 학력이 낮을수록 격리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 이들의 그런 자신감이 자녀의 양육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반영되어 격리불안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사회생활에서의 직업적 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대리양육에 따른 격리불안을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격리불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Bunge(1983), McBride와 Belsky(1988), 송진숙(1994)의 연구결과와 학력이 높을수록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이영미(199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2)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실태와 격리불안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 현황에 관한 여러

<표 4> 주말부모 어머니 일반적 특성과 격리불안

변수	내용	N	M(SD)	F(t)값	Schéffe
연령	20대	50	122.1( 8.60)	4.31*	
	30대 이상	85	118.6( 9.53)		
학력	고졸 이하	46	121.6( 9.52)	2.67*	A
	전문대졸	45	120.8( 9.83)		
	대졸	35	118.6( 6.40)		
	대학원졸	10	112.8(11.30)		

\* $p<.05$



변수와 격리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방문빈도에 따른 격리불안( $F=3.52, p<.05$ )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문빈도가 빈번하거나 낮은 경우에 격리 불안이 낮았는데, 한 달에 2-4번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빈도가 빈번한 경우 자녀를 자주 접촉하면서 어머니가 자녀가 양육되는 환경과 자녀의 정서 및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불안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달에 한번이하 방문하는 경우가 한 달에 2-4번 방문하는 경우보다 격리불안이 더 낮은 것은 거리상의 이유나 기타 다른 이유로 아이가 있는 곳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 즉,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으로 어머니 자신의 격리불안의 감정수준이 낮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리양육 형태에 따른 격리불안에서 친정( $M=118.7$ )과 시댁( $M=120.4$ )만을 비교해보았을 때 시댁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말부모 어머니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3) 주말부모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격리불안과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취업의 이유로 자녀를 대리양육자에게 맡긴 후 보이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연구(조복희·현운강, 1994)에서 밝혀진 만족도(3.1)보다 높았다. 자녀를 같은 집에서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 역할의 만족도가 높다는 양육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주말부모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격리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r=.18, p<.05$ ), 주말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격리불안도 높았다. 이는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를

통한 부모역할만족도는, 외적인 상황이 나은 부모역할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격리불안을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주말부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3.2점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정기간마다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또 만나는 일정 시간만이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주말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격리불안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 p<.05$ ).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격리불안이 높았는데,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주말부모의 죄책감

주말부모 어머니의 죄책감의 평균은 3.5점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볼 수 없는 주말부모가 갖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리양육자가 주로 부모님이나 친척이기 때문에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지만, 여전히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질문으로도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느끼는 죄책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녀가 아플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기 싫어하고, 헤어져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운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 자녀가 일요일에 부모와 함께 놀러 갔다온 후 피곤해도 부모가 갈까봐 자지 못하는 경우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자녀가 대리양육자를 엄마로 알고 있는 경우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았을 때 다가가지 않고 대리양육자 뒤에 머물러 있거나 자녀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을 때, 여윈 얼굴을 보았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른 자녀에 비해 언어발달이나 발육이 뒤진다고 생각될 때, 엄마·아빠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가는 아이를 보았을 때와 자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엄마, 언제와?”라고 울면서 물어봤을 때, 일찍 퇴근하여 집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자모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나 자녀를 돌봐주시는 부모가 편찮으실 경우에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말문이 겨우 트였는데 “엄마, 싫어. 엄마 가!”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도 있었고, 엄마 모습과 유사한 여자만 지나가면 “엄마, 엄마”하고 부른다고 하는 경우와 아이의 꿈을 밤마다 꾸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1) 주말부모의 자녀양육실태와 죄책감

주말부모의 자녀양육실태와 죄책감을 살펴본 결과 대리양육자에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죄책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6.05, p<.01$ ), 대리양육자를 불만족할수록 죄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대리양육자가 대신 잘 수행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에게 느끼는 죄책감의 수준이 낮았다. 이는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의 죄책감이 높다고 한 백경임·강희경(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않았지만, 친정( $M=72.8$ )이나 시댁( $M=74.7$ )보다는 친척집( $M=79.7$ )이나 보육시설( $M=79.3$ )을 이용하는 경우가 죄책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정과 시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친정보다 시댁의 경우 죄책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아이의 양육문제에 대한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죄책감보다 어머니의 시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주말부모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죄책감 및 격리불안

주말부모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죄책감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보았다. 부모역할만족도와 죄책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육스트레스와 죄책감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8, p<.01$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갖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별로 높지는 않지만 죄책감과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죄책감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2, p<.01$ ). 직장 때문에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죄책감과 격리불안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녀와의 격리로 인해 취업모들이 죄책감을 높게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실태 및 격리불안과 죄책감의 정도를 살펴보고, 자녀양육실태와 주말부모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주말부모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죄책감의 차이, 그리고 주말부모의 격리불안과 죄책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요약한다면 첫째, 주말부모 어머니는 주로 4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대리양육하고 있었으며 대리양육기간은 1년-3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맡기는 곳은 대부분이 친정이나 시댁이었으며, 주말부모 어머니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녀를 방문하며 전화접촉은 하루에 한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맡기는 곳이 친정이나 시댁이었기 때문인지, 응답자 대부분이 대리양육자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하는 보육유형은 시(친정)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설화된 보육형태이었다.

주말부모의 가족형태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와 성격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자녀의 서먹한 관계나 자녀와 헤어질 때 갖는 마음 고생, 자녀의 성장 상태에 대한 정보부족을 제시하였다. 아이와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할 때나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해 보이거나 자녀가 다쳤을 때 죄책감이나 격리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둘째, 주말부모 어머니가 느끼는 격리불안은 중간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한 달에 2-4번 방문하는 어머니들이 가장 높은 격리불안을 보였다. 또한 격리불안은 방문빈도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말부모의 격리불안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주말부모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격리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주말부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대체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격리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말부모 어머니의 죄책감은 일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며, 대리양육만족의 정도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리양육 만족이 낮을수록 죄책감을 더 느꼈다. 부모역할만족도와 죄책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죄책감간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부모의 격리불안과 죄책감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격리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죄책감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주말부모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어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면 주말부모의 가족형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말부모는 자녀를 자주 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격리불안이나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된다. 이는 부모에게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자녀 상호관계의 문제점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말부모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애로점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보육기관의 질적인 향상과 취업모들의 실제적인 보육시간 요구도를 고려한 보육기관의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은 시(친정)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시설보육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많은 주말부모 어머니들이 비록 그들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에 많이 참여하였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 남은 여생을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더 편안히 지내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 손자녀의 양육은 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말부모의 자신들도 스트레스나 죄책감이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아동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취업모의 실제적인 보육시간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보육기관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셋째,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어머니의 거의 대부분이 직장포기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직장포기에 대한 이유가 자녀를 타인에게 맡김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자녀의 성격발달에 대한 염려와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여 아직까지 아이는 반드시 어머니가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아이에게 일어나는 좋지 못한 사건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적 부모역할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여성단체나 복지시설에서 마련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 ■ 참고문헌

- 1)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 21-37.
- 2)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3) 김미영(1995).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 전문직 취업모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숙자(1990). 취업모를 위한 탁아제도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 5) 박숙자(1991). 가족과 직업. 가족학논집(한국가족학회 편), 3, 143-160.
- 6)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백경임·강희경(1995).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 8) 서영숙·김경혜(1997).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숙명여자대학교편), 2(2), 73-101.
- 9) 손승영(1994).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10) 송진숙(1994).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오선영·이 숙(1993).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실태 및 탁아서비스에 관한 요구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2), 141-157.
- 12) 유가효·조희금·이혜인·박충선(1991).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 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227-247.
- 13) 이미화(1993). 기혼 여교사의 탁아실태와 요구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재연·김명숙(1990). 한국 취업모 자녀의 탁아 형태 변경양상과 그 문제점. 아동연구, 5, 13-42.
- 15) 전세경(1994a). 도시 취업모의 탁아유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135-147.
- 16) 전세경(1994b).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태도 및 탁아모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정민자·위미혜(1990). 생산직 취업모의 탁아서비스의 요구 및 그들을 위한 탁아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25-140.
- 18) 조복희·박성옥(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13, 16-37.
- 19)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20)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6 여성통계연보.
- 21) 한국여성개발원(1994). 1994 여성통계연보.
- 22) 한국여성개발원(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198 연구보고서 230-235.
- 23)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0).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탁아실태에 관한 조사. 여성, 10, 6-18.
- 24) 허 선(1993).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지역사회탁아소 연합.
- 25) 현은강·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26) Aibidin, P.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27) Bunge, J. (198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n employed mothers as it relates to socioeconomic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28) Mann, M. B.,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29) McBride, S., & Belsky, J. (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 Psychology*, 24, 407-414.